



cpbc TV



여기 두 명의 신부가 있습니다.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힘들고 어렵게만 여겨지는
우리 신앙생활을 성덕(聖德)의 길로 안내할 친절한 동반자. **김인호 신부**와 **마진우 신부**를 소개합니다!



I 영적 건강은 나에게

김인호 루카 신부(대전가톨릭대 교수)

흔히 ‘왜 종교를 가지십니까?’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김인호 신부는 신앙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날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 성당에 다니던 한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성당에 다니면 치료가 될 줄 알았는데, 맨날 ‘내 탓이오’ 하니 죄책감만 커지고,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울감만 더 깊어져요” 하시더군요. 신앙은 절대 심리치료 같은 것이 아닌데 말이죠.



김 신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자칫 사이비 종교에 빠질 위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신앙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김인호 신부의 친절한 강의를 통해 건강한 신앙생활을 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신부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본방: 목요일 아침 8시 | 재방: 금요일 오후 1시 · 토요일 새벽 1시 · 일요일 아침 7시 · 월요일 저녁 8시



I 마음을 열면 신앙이 보인다

마진우 요셉 신부(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

성경의 50번째 책이자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어제든 오늘도 바라보는 사제가 있습니다. 마진우 신부의 ‘요한복음’ 사랑은 남다른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듬뿍 묻어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함축적인 사랑의 언어로 되어있어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체험이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도와 드리면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은 무엇인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는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함께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정겨운 마진우 신부는 이미 유튜브를 통해 많은 신자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겸손기도 신부의 ‘와서 보시오!’ (7월 20일 방송 시작)

본방: 금요일 아침 8시 | 재방: 토요일 새벽 2시 · 월요일 오후 1시 · 화요일 저녁 8시 · 수요일 밤 12시